

광주시·전남도, 코로나 상생지원금 지급 준비 돌입

광주시 130만명, 전남도 174만명 이달말 지급
추경예산 편성·전담TF 구성·민원 콜센터 운영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달 말로 예정된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1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달 말로 예정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관련 추경예산 편성과 전담 TF 구성, 상생카드 제작, 보조 인력 채용 등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난달 24일 정부 추경을 통해 확정됐으며,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원이다. 지급 방식은 선불카드, 체크카드, 신

용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수령자가 고르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고액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는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와 광주상생카드 중 선택해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시는 전체 시민의 90%에 해당되는

130만명 정도가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소요예산 3250억원의 20%인 650억원에 달하는 지방비 부담액을 시와 자치구가 분담하는 방안을 조속히 결정해 추경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11만3000명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별도 신청절차 없이 오는 24일 기준 복지급여 계좌로 추가 지원한다.

전남도는 전체 도민 184만여명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174만여명을 지급 대상으로 보고 있다. 소요예산 4372억원 가운데 국비(80%)를 제외한 지방비 부담분 20%(도비 350억원, 시·군비 524억

원)를 제2차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등 관련 준비를 진행 중이다.

시·도는 소득 기준 경계에 있는 시·도민의 민원 발생을 고려해 전담 콜센터와 이의신청 처리반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달주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신청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와 함께 사전 지급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은 물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코로나 극복

17~20일 장애인 특별 주간

광주시는 오는 17~20일 코로나19 극복 장애인 특별주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 문화예술, 청년·청소년, 여성·보육, 어르신에 이어 여섯 번째 특별 주간이다.

이용섭 시장은 오는 17일 서구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관련 기관, 단체, 시설과 함께하는 '생생토크'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다.

또 서구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아이스팩 재활용 일차 현장, 전국 최초로 개소한 최종증 발달장애인 융합 돌봄센터도 방문한다.

이 시장은 농아인 쉼터, 광주시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제석 근로사업장 등을 찾아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2일 오전 광주 서구 삼성화재 상무 사옥에서 열린 NHN 광주사무소 개소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한국 수목의 미, 카자흐스탄에 알린다

‘한국 수목 해외전시’

카자흐 국립박물관서

전남도와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한국 수목 해외전시'가 '수목의 독백-그림 속에 놀다'라는 주제로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2달간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에서 펼쳐진다.

이번 전시는 우수한 한국 수목을 글로벌 미술계에 새로운 장르로 주목받도록 하고 2021 전남국제 수목비엔날레의 국제적 인지도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카자흐스탄 독립 30주년을 기념해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전시실에서 진행한다. 카자흐스탄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수목화 전시엔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28인의 작품을 소개한다. 전통 수목화 기법을 활용해 현대적 요소를 담아낸 한국 수목의 아름다움을 선보여 관람객의 시선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전시 개회식은 주재국의 엄중한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주재국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 등 30명이 제한적으로 입장해 열린다.

이혜란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장은 "카자흐스탄 독립 30주년을 맞은 중요한 해에 한국의 수목화를 소개해 기쁘고, 주재국인들이 한국 전통 미술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수목화 전시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 따뜻한 위로가 되고, 두 나라의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게 개회식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카자흐스탄에서 진행되는 '수목의 독백' 전시를 통해 한국의 오랜 역사와 수려한 자연 속에서 독창적인 화풍으로 발전한 수목화를 선보이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NHN, 국가 AI데이터센터 구축·지역 상생 추진

광주사무소 상무지구 개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과 지역 사회 협력사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NHN 광주사무소가 12일 상무지구에 문을 열었다.

지난 2월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국가 AI 데이터센터 착수식, 투자협약을 함께 한 NHN은 세부 실행 계획도 발표했다. NHN은 지역 사회와 상생 협력을 위해 내년 6월에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NHN 아카데미'를 설립해 매년 60여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2023년에는 'NHN R&D(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해 연간 30여명씩 모두 180여명의 지역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AI 산업 발전협회의 회장사를 맡아 우수 AI 기업 유치, 기업지원 프로그램 공동 운영, 정부 AI 과제 기획과 공동 발굴 등에도 힘쓸 예정이다.

900여억원을 투입해 2023년 광주 첨단 3지구에 들어서는 국가 AI 데이터센터는 컴퓨팅 연산 능력 88.5PF(페타플롭스), 저장용량 107PB(페타바이트)로 세계 10위 안에 드는 수준이다.

NHN 백도민 클라우드 사업 부문 대표(CIO)는 "NHN의 클라우드 역량과 노하우를 집중하는 한편, 지역 사회 발전과 IT 인재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NHN과 함께 구축할 국가AI데이터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 수준의 시설로, AI중심도시 광주, AI 4대강국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NHN이 우수 AI기업 유치와 육성, 정부과제 공동발굴 및 추진 등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을 견인해가는 상생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지역사회건강조사

흡연·코로나 등 163개 항목

광주시는 "질병관리청, 조선대학교와 협력해 오는 16일부터 10월31일까지 지역 만 19세 이상 성인 45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청과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 매년 수행하는 법정조사다.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해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방식은 광주 5개구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질병관리본부가 선정한 표본가구를 방문,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대 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조사항목은 기본 가구조사, 흡연·음주·운동 등의 건강행태, 만성·급성질환 유병여부, 사고 중독 경험, 의료 서비스 이용, 예방 접종, 방역수칙에 대한 인식 및 준수 여부 등 코로나19 관련 문항이다.

임진석 시 건강정책과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광주시의 지역 건강 수준 평가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고수온 피해 대응

국비 8억 추가 확보 어가 지원

전남도가 지속되는 폭염으로 연안해역에 발원된 고수온 특보 상황에서 양식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비 8억원을 추가 확보해 양식어가에 지원한다.

전남 해역에서는 지난 7월 15일 고수온 주의보가 처음 발령된 이후 20일 함평만 고수온 경보에 이어 8월 4일 전남 연안해역 일대로 고수온 경보가 확대됐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고수온 피해 선제적 예방을 위해 올해 초 여수 등 10개 시·군에 13억원을 지원해 산소공급기 등 대응 장비를 확보하고, 수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시로 대응 장비를 가동하고 차광막을 설치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에 추가 확보한 국비는 사업비 부족으로 고수온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육·해상 양식어가에 차광막, 산소 발생기, 액화산소 구입비 등으로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또 수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유관 기관과 협조해 피해 어가의 경영 안정과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박영채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양식어가에서는 수시로 산소 발생기를 가동하고 사료 공급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에선 고수온으로 지난 8월 초부터 현재까지 여수와 완도지역 양식어가에서 우럭, 납치, 전복 140만 마리가 폐사해 10억8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창립 4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대상
300만원 상당(1명)
금 10돈

1등
100만원 상당(1명)
건조기

2등
50만원 상당(2명)
청소기

3등
30만원 상당(3명)
쿠루밥솥

4등
10만원 상당(10명)
에어프라이어

5등
5만원 상당(20명)
캐시리상품권

경품행사기간 : 6월 21일 ~ 10월 31일

#경품추첨일 2021년 11월 10일

#경품추첨장소 대광금고 본점 3층 회의실

#경품응모권 지급 조건 ①저동이체 **신규 및 변경**(최소 5건 이상) ②출자금 **신규 및 추가**(최소 30만원)

#가입기본선물 고급 통장케이스 증정

MG대광새마을금고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지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

※본 경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이며 상기 조건은 추첨일까지 유지자에 한합니다.